

〈강연록〉

【隨想】 마음에 남은 말*

가네코 슈이치(金子修一) 저

우성민 역**

〈목차〉

- I. 시작하며
- II. 우선 소개하고 싶은 말
- III. 학문을 지속시키기 위한 마음가짐
- IV. 학문연구를 지속시켜 나가는 마음가짐

I. 시작하며

나는 2023년 3월 고쿠가쿠인대학(國學院大學) 대학원 객원교수를 퇴직하면서 같은 달 8일에 마지막 강의시간을 가졌다. 내가 도쿄대학(東京大學)에 입학한 1968년은 일본에서 대학 분쟁이 시작된 해였고, 결국 대학재학 중에 정규 학년코스로 수업을 받은 것은 그해 전기뿐이었다.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에 진학한 1972년부터는 제대로 된 학년코스로 수업을

* 이 글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된 가네코 슈이치 國學院大學 객원교수의 퇴임강연 원고를 번역한 것이다.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들을 수 있었는데, 은사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선생이 한대(漢代) 황제지배에서의 예제(禮制)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내가 석사과정에 재학한 3년 동안은 『후한서(後漢書)』(『속한서(續漢書)』) 제사지(祭祀志)를 강독하였다. 니시지마 선생도 처음 읽는 사료여서 완전히 시행착오의 강독이었다. 나는 1975년 4월부터 고치대학(高知大學) 문학이학부(이후 인문학부로 개편)에 취직하였는데, 그 후의 연구는 독학으로 익힌 것이나 다름없다. 그때 명심한 것은 마음 속에 간직해야 할 동료·선배·은사 등을 마음에 새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천하는 것이었다. 어떤 것도 뒷사람 말에 국한되지 않았고 또 학생 한 명이 친구를 소개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장점을 꼽는 데 감탄했던 것도 기억난다. 아래 글은 마지막 강의 때 언급했던 그 분들의 말이나 글인데, 내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나 글에서 무엇을 생각했고 또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적었는지를 설명하며 수상(隨想)으로서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II. 우선 소개하고 싶은 말

중학교 시절의 은사 우스다 야스오(臼田泰夫) 선생(영어)
<젊은 교사에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철학을 공부하고 예술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내가 교육학 연구자에게 우스다 선생의 말씀을 소개해도 좋은지 전화로 물었을 때>

“그 선생님에게 전해주길 바라네. 내 생각에는 수업은 한 번 한 번 되풀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교사로서 담임을 맡았을 때〉

“학기 초에 학부형의 집을 돌며 내 교육방침을 전한다. 클래스의 바깥에서 부터 클래스를 장악해 나간다.”

내가 평생의 스승으로 삼았던 선생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중학교 때 브라스밴드부(합주반이라고 했는데, 나는 큰 북을 쳤었다)의 고문 우스다 야스오(臼田泰夫) 선생이었다. 아쉽게도 우스다 선생의 수업은 들은 적이 없었지만, 고등학교 이후에도 선생님 댁에는 자주 들렀다. 그중에서도 인상에 남은 것이 이상의 말이다.

〈관련하여 독립대학 부속 고등학교 시절의 오이시 슈헤이(大石修平) 선생(일본근대문학, 이후 독립대학 교수)〉

“학생 여러분은 학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길 바란다. 나머지는 교사가 책임진다.”

那須正幹, 『ズッコケ文化祭事件』 → 그들 속의 주역은 다쿠와(宅和) 선생

앞의 우스다·오이시 선생님 말씀에 공통되는 자세는 학생의 바깥쪽에서 선생이 책임을 지며 지켜본다는 것이다. 나스 마사모토(那須正幹)의 『즈코케 3인조』를 소학교 시절에 읽은 사람은 많겠지만, 그 가운데 『즈코

케 문화제 사건』은 아동문학 작가에게 의뢰한 각본을 3인조가 환골탈태시켜 활극으로 만든 것에 대해 담임인 다쿠와(宅和) 선생이 아이들에게는 마음대로 하게 하고 PTA나 교장 선생님에게는 변명하며, 마지막에는 작가의 집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아동문학론을 논쟁하고 있다. 이 작품 속 그들의 주역은 다쿠와 선생으로 바로 학생의 바깥에서 선생이 책임지고 있다.

우스다 선생의 말(앞에 이어서)

“망각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엄하게 징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지나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전쟁은 안 된다고 계속 외쳐야 한다.

고치대학 와타나베 마사미(渡邊昌美) 교수

〈서양중세사, 주저 『異端カタリ派の研究 -中世南フランスの歴史と信仰』, 岩波書店, 1989; 『中世の奇蹟と幻想』, 岩波新書, 1998; 마르크·브록, 『王의 奇跡』, 井上泰男와 共譯, 刀水書房, 1998; 엠manuel·르·로ワ·라デュ리, 『몬타뉴어: 피레네의 村一二九四~一三二四』, 井上幸治·波木居純一와 公譯, 刀水書房, 1990~1991. 내가 고치대학에 부임하기 전 예비조사 차 갔을 때 헤어지면서〉

“(연구에서) 유행을 좇지 마세요. 유행을 좇아 논문을 쓰면 자신의 논문을 발표할 무렵에는 진부해져 있습니다. 속된 말로 유행을 하루 빨리 쓰는 것은 저슬리지만 하루 늦게 쓰는 것은 촌스럽다고 하죠.”

〈신출내기인 내가 원고의뢰가 왔을 때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할 때〉

“프로가 안 됐네. ‘2년에 써라’고 하면 2년에 쓰고, ‘이틀에 써라’고 하면 이틀에 쓴다. 그러면서도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게 프로다.”

나는 26세가 되던 해에 고치대학에 취직했는데, 그때 연구자·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사사건건 가르쳐 주신 것은 와타나베 마사미(渡邊昌美) 선생과 아키자와 시게루(秋澤繁) 선생이다. 와타나베 선생 자신도 나와 같은 연령일 때 고치대학에 취직하였는데, 일본에서는 몇 안 되는 알비 십자군 연구자로서 일본의 연구를 이끌었다. 지방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어떻게 본인 학문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학문적 자세를 항상 시사받았다.

고치대학 아키자와 시게루(秋澤繁) 교수(일본중세사)

“뭘, 스스로에게 플러스가 되는 논문을 쓰면 좋겠다.” (갓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논문을 쓰고 싶어지는데, 나는 이 한마디로 ‘그렇구나, 내게 도움이 되는 논문을 쓰면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상당히 마음이 편했던 기억이 난다.)

“현상에 구애될지, 가능성에 도박을 걸지는 교육의 요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야.”(내가 야마나시대학(山梨大學)으로 옮길 때는 ‘젊은이의 가능성에 기대합니다’라고 말하며 보내주셨다).

“뛰어난 학자의 첫 논문을 읽어라.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이 꼭 차 있다.”

(그때 아키자와 선생이 꼽은 것은 사토 신이치(佐藤進一)의 『가마쿠라막부 소송제도 연구』였다. 초판은 1939년 졸업논문에 가필하여 敵傍書房에서 1943년 4월 간행되었다. 再刊은 岩波書店에서 1993년에 나왔는데, 부록으로 ‘가마쿠라 막부 직원표 복원 시도’가 증보되었다. 이것은 1983년 이래의 노작인데, 이러한 지루한 일을 참을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앞과 같은 책의 골격을 졸업논문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아키자와 선생은 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도쿄대학으로 유학하였고 그 후 아시미즈가 초소카베 토지조사 장부[長曾我部地檢帳]와 태합 토지조사[太閤檢地] 연구로 일본의 대표적인 연구자가 된 분이다. 지금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모아보면 갓 시작한 나에게 마음을 써준 것을 잘 알 수 있다.

〈아키자와 선생의 고치대학에서의 마지막 강의 중에〉

“다른 사람의 연구를 비판할 때 이러한 사료가 있다, 혹은 이러한 사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비판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사용한 사료를 사용하여 그 사람의 논지를 비판하는 것이 진정한 비판이다.”

오차노미즈 여자대학(お茶の水女子大學)의 아오키 카즈오(青木和夫) 교수

〈내가 100개의 사료 가운데 98에서 99까지 나의 가설로 설명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한두 가지를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예외라고 해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머리가 안 좋기 때문이고, 사료를 끝까지 굴복시켜야 해”

이상과 같은 아키자와 선생과 아오키 선생의 말씀은 연구비판·사료비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엄격히 가르쳐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글을 인용해 둔다.

본래 이론가의 임무는 현실과 일거에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치 기준에 비추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방법적으로 정립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립된 인식이 아무리 완벽한 것이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할 것도 없이 현실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론가 스스로의 책임에 있어서 현실로부터 아니 현실의 미세한 일로부터 의식적으로 뽑아낸 것이다. 따라서 이론가의 눈은 한편으로는 엄밀한 추상의 조작에 쏠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대상 외변의 무한한 광야에 두고, 그 바깥은 여명 속으로 사라져 가는 현실에 대한 어떤 단념과 조작 과정에서 흘러내려가는 소재에 대한 애정이 거기에는 끊임없이 수반되고 있다. 이 단념과 남겨진 것에 대한 감각이 자기의 지적 조작에 대한 엄격한 윤리 의식을 배양해 한층 더 에너지 있게 이론화를 추진해 나가려는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丸山眞男, 『日本の思想』, 岩波新書の I. 『日本の思想』, 60쪽)

Ⅲ. 학문을 지속시키기 위한 마음가짐

다음은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선생을 비롯하여 학문을 계속해 나가는데 참고가 되었던 사고방식 및 일상적인 면학 자세에 관한 말씀이나 문장을 말해 보겠다.

…… 학술연구회에서 가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다지 칭찬할 만한 일이 아

니기 때문에 나도 흔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설이라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 가설이 없는 연구라는 것은 없고 대체로 역사가로서 노력한다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씩 가설을 생각해 내지 않으면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 바로 스스로 그 가설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이 떠오르고 1~2분 만에 “아, 안 되겠네”라는 가설도 있고(웃음) 이틀이나 사흘 정도 검토한 끝에 “역시 안 되겠네”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또 한 달 넘게 검토하고 나서야 “안 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을 검토해 봐도 모르는 것도 나옵니다. 이 경우의 가설은 가설로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西嶋定生東アジア史論集(第三卷)一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岩波書店, 2002, 388~389쪽. 原載: 『日中古代文化の接点を探る』所収「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墳丘墓の展開」, 山川出版社, 1987)

이상과 같은 니시지마 선생의 발언을 처음 읽었을 때에는 ‘뭐 그런 거겠지’라는 감상을 가졌다. 그러나 내가 경험을 쌓다 보니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말로,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 나는 니시지마 선생을 가까이서 보았고, 선생님이 전문 분야 이외의 것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또 제대로 순서를 세워 외우려고 했는지를 보았다. 평소의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매일 가설을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다. 이하 노무라(野村) 선생의 발언까지는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글이나 발언이다. 노무라 세이이치(野村精一) 선생도 내 생애의 은사였고, 그 박식과 넓은 시야에는 항상 감복을 하였다.

2006년 5월 2일(화) 아사히신문 석간의 기자석(記者席), 과학의료부 우치무라 나오유키(内村直之)의 “아무도 보지 못한 보물을 깨닫다”.

지난해 5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쓰키다 쇼이치로(月田承一郎) 교토대 교수가 “작고 작은 클로딘 발견 이야기”(羊土社)에서 ‘시력’에 대해 썼다.

“커다란 보물 옆을 우연히 지나간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모두가 눈치채지 못한 보물이 바로 옆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연구자라고 한다. 이 알아차리는 힘을 그는 ‘시력’이라고 불렀다. 시력은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폭넓게 지식을 탐욕스럽게 흡수해서 내 안에 체계화하는 것으로부터 생긴다고 한다.

이런 일화가 생각났다. 메이지 때 흰쌀밥을 먹는 육군 병사들에게 각기가 많이 발생했다. 독일식 영양학으로 양식을 조사한 육군 군의관 모리 린타로(森林太郎, 오가이鷗外)는 해군 다카기 가네히로(高木兼寛) 등의 선행 연구도 무시하고 “백미에 영양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도쿄대 의학자도 “각기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각기 현상은 아시아에만 있었다. 그런데도 각기를 해명한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연구한 뒤 비타민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네덜란드인 에이크만이었다. 거의 효용을 일본인들이 깨달은 것은 그 뒤였다. 눈 앞의 보물이 보이지 않던 일본 과학자들의 실례이다.

쓰키다 씨는 해외 유학이 없고, 영국 과학지 네이처에 투고가 없는 등 이례적이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세포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물질인 클로딘을 발견하여 새롭고 넓은 자신의 학문을 만들었다. 그것은 중고교 시절부터 단련한 시력 덕분이었다.

拙稿, 「古代史と現代をつなぐもの」, 國學院大學大學院史學專攻大學院會, 『史學研究集録』 32, 2007.3에 적은 말이다.

예전에 야마나시 대학(山梨大學)에서 근무하다가 합병하기 전 야마나시 의과대학(山梨醫科大學) 비상근강사로 출강하던 때가 있었다. 비상근강사실에서 경제학 담당 교원으로 온 중소기업 진단사 이마무라 요시오(今村義男)

씨(고인)와 자주 만나 여러 가지 잡담을 나누었다. 그러한 시기에 역사연구는 문헌을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문헌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은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 사료는 쓸 수 있다”는 감각은 젊은 사람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이마무라 씨는 빙긋 웃으며 특의양양하게 “요컨대 직관이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교양이고요”라고 단언했다. 교양을 중시한 구제고등학교(구제부립고등학교) 졸업생다운 말이라면 맞는 말이겠지만, 스스로 뭔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사료에서도 새롭고 일정한 보편성을 갖는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나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노력은 전문 연구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직관을 지탱하는 것은 교양이다”라고 하는 얼핏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요점을 알아맞혔다고 생각한다. 내가 연구를 시작할 무렵에 비해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연구사의 벽은 점점 더 두터워지고 있다. 그렇더라도 전문분야 이외의 연구에 눈을 돌려 그 내용이나 방법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데 중요한 요건이 아닐까.

도립대학 부속 고등학교 시절의 노무라 세이이치(野村精一) 선생

〈일본 고대문학, 특히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 이후 잇센여자대학(實踐女子大學) 교수〉

“나의 전문분야는 ……”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모른다는 핑계 밖에 안 된다.

IV. 학문연구를 지속시켜 나가는 마음가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도를 계속 실현할 수 있는 환경에 몸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계속하는 것도 그리 간단치 않다. 이하는 내가 교육이나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 소중한 여겼던 말이다.

○ 야구 선수였던 오 사다하루(王貞治) <2년 만에 큰 슬럼프를 극복한 후>

“지금 생각하면 ‘여기가 안 좋다’,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슬럼프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 진짜 슬럼프다.”

○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선생 <내가 고치대학(高知大學)에 부임할 때 여러 가지 조언해 주셨던 것의 하나>

“상태가 좋을 때 이론을 해라. 상태가 나쁠 때는 사료를 읽어라.”

○ 문학부 시절의 은사 다나카 마사토시(田中正俊) 선생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사료는 어차피 유한하다. 유한한 사료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마에다 고로(前田護郎) 선생 <언어학자, 신약성서 번역. 대학 1학년 전기 수업의 마지막 날에>

“여름 방학에는 전문 분야(자신이 전문 분야로 하고 싶은 것)와 우수한 개설, 그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라. 아, 어학도 넣으면 2.5개로군.”

- 야마나시 대학(山梨大學) 교수, 서양사의 다카하시 오사무(高橋理) 선생 <이후 일본한자학회 회장, 저서 『한자동맹-중세의 도시와 상인들』(教育社, 1980; (증보판) 創元社, 2013). 정년퇴직하던 해 학생들과의 고별모임에서>

“65년을 살아오면서 이것만은 틀림없이 말할 수 있다. 눈앞의 이익을 쫓지 마라. 눈앞의 이익을 쫓으면 인간이 작아진다.”

- 도립대학 부속 고등학교 시절의 미키 와타루(三木亘) 선생 <세계사, 특히 이슬람사. 이후 도쿄외국어대학(東京外國語大學) 교수. 도쿄외대에서 도쿄대 문학부로 비상근강사로 오셨을 때 인사한 나와 친구에게>

“후배는 선배에 대해 논문으로 깜짝 놀라게 해야 한다. 그것이 후배의 선배에 대한 예의다.”

- 가와사키 츠네유키(川崎庸之) <후배 아오키 카즈오(青木和夫) 선생 등에게 항상 한턱내셔서 후배들이 되갚으려고 하였을 때 어느새 본인이 먼저 요금을 내자 “억울하다”고 말하는 아오키 선생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되갚지 않아도 돼. 문제는 너희들이 후배에게 어떻게 하는지야.”

이상과 같은 미키 와타루 선생과 가와사키 츠네유키 씨의 이야기를 내 방식으로 종합해서 바꿔 말하면, 학문을 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이 은사로부터 받은 학문을 후배나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둘째는 논문으로 은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다. 사족이지만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란 트집을 잡는다는 것이 아니다. 일독해서 “그렇군, 듣고 보니 그렇다”라는 소감을 들을 수 있는 논문을 쓰면 좋을 것 같다.

이하는 참고로 본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었던 문장들이다. 마지막의 『레 미제라블』은 장발장이 임종할 때 한 유언인데, 작품의 초반부에서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은 촛대를 훔쳐 경관에게 붙잡힐 때의 장면을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

…… 또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증명될 수 있는 작용의 관련이라는 중립적 의미로, 이를 의식적으로 견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인자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불분명하기 때문에 작용 관련을 상세히 증명해 보일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하지 않다 혹은 의심스럽다라고 적어야 하며, ‘우연’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연이라는 것의 의미는 대개 세계관의 문제이다.(베른하임 저, 坂口昂·小野鉄二 譯, 『歴史とは何ぞや』, 岩波文庫, 83~84쪽)

그러나 더 다방면의 요구를 하는 것은 보고적(報告的) 사료 그 자체의 해석이다. 이 경우에는 우선 말을, 문구뿐 아니라 그 의미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므로 …… 역사가는 그 영역에서 이 학문에 충분히 통달해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사료 안에서 취급해야 할 언어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시대와 지방에서의 표현 방식의 다양하고 특수한 관계나 세세한 차이를 알아야 하며, 또한 각 시대 및 토지의 사고방식이나 관용에서 발생하는 표현, 유행어, 술어의 특유한 의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문제의 시대에 숙지되었던 사상(事象) 혹은 문학에의 풍자 혹은 인용도 이것이 풍자나 인용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요컨대 사료를 이해하는 것은 그 작가가 상대로 했던 과거의 독자 혹은 독자층과 같이 직접적이어야 한다.(베른하임, 『歴史とは何ぞや』, 206~207쪽)

하나의 발전계열의 관절과 같은 것으로 함께 합쳐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를 찾아내 서로 결합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고립된 여러 점들로부터 이것들을 연결하는 선을 그려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멋대로 하는 것, 시인이 상상의 결합에 빠지듯이 해서는 안 된다. 주어진 확실한 사료 사항에 엄밀하게 의거해야 한다. 또한 그 사료 사항들 사이에 인과적 결합을 만들려고 시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의한 추론뿐만 아니라, 그들 사항을 그 내부에 존립시키고 있는 제반 사상(事象)-상태의 특별한 조건에 따른 추론에 의거해야 한다.(베른하임, 『歴史とは何ぞや』, 215~216쪽)

진정한 학자는 냉정하고 조심스러우며 신중한 법이다. 주위를 둘러싼 현세의 격류 속에서도 결코 일을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른다고 뭐가 되겠나.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이 견실하고 결정적이며 청렴한 것이다. 어떤 증서가 가짜라는 것을 유럽의 학자 두세 명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몇 주에 걸쳐 단 20페이지의 작은 걸작을 연마”하거나, 개찬된 사료의 가능한 한 양질의 본문을 확립하기 위해 1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후세 학자들이 언젠가 같은 시간을 사용하여 다시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다지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미발표된 방대한 책을 출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샤를 세뇨브, 샤를-빅토르 랑글루아 저, 八本木浄 譯, 『歴史學研究入門』, 校倉書房, 1989, 101쪽)

만약 진실로 모순된다면 적어도 둘 중 하나는 가짜일 것이다. 이 경우 절충

안이 채택되어 타협한다는 것이 조화를 찾는 자연의 성향이다. (하지만) 이 타협적 정신은 과학적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 둘 중 어느 쪽이 옳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비판이라는 것이 다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으면 적어도 하나는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나가 지극히 확실한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양자가 모두 의심스럽다면 결론은 보류해야 한다. 몇몇 의심스러운 주장이 서로 일치하고 단 하나의 의심스럽지 않은 주장이 이와 대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이다.(세노보·랑글루아 저, 『歷史學研究入門』, 161쪽)

비슷한 사료 각각의 숫자를 계산해서 다수결로 이것을 결정하려는 유치한 행태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사실을 숙지한 한 작가의 주장은 그것을 모르는 100명의 주장에 비해 더 뛰어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오래 전부터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숫자는 계산하지 말아야 하고, 그 경중이야말로 저울질해야 한다.”(세노보·랑글루아 저, 『歷史學研究入門』, 169쪽)

…… 그리고 나는 벽난로 위에 있는 두 개의 촛대를 코제트에게 물려준다. 은(銀)이지만 나에게서는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좋고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고 해도 좋은 물건이다. 세워진 촛불을 성스러운 큰 촛불로 바꾸는 힘 있는 촛대다. 나에게 저것을 준 사람(밀리엘 주교)이 과연 나를 하늘에서 만족스러운 눈으로 봐주시지는 나도 모르겠다. 다만 나는 나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왔다.(빅토르 위고 저, 豊島與志雄 譯, 『レ・ミゼラブル』 4, 岩波文庫, 616쪽)